

아동의 내면화·외현화문제행동 관련변인들 간의 인과적 구조분석*

A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the Related Variables of
Children'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문대근(Dae-Geun Moon)¹⁾

문수백(Soo-Back Moon)²⁾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 related variables of children's internalization and externalization of problems. A total of 709 elementary school students residing in Daegu City and Kyungpook province completed questionnaires which assessed family interaction functions, emotional regulation, self-control, and internalization and externalization of problems. The sample variance-covariance matrix was analyzed using AMOS 19.0, and a maximum likelihood minimization function. Goodness of fit was evaluated using the SRMS, RMSEA, and its 90% confidence interval, CFI, and TLI.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First, the function of family interaction, and emotional regulation had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the internalization of problems. Moreover, emotional regulation, self-control and internalization of problems had a statistically substantial direct effect on the externalization of problems. Second, family interaction functions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rect on children's externalization of problems, although it may well have an indirect effect on children's externalization of problems through emotional regulation and self-control. Finally, self-control did not enjoy a direct effect on children's internalization of problems.

Key Words : 내면화·외현화문제행동(internalization and externalization of problems), 가족상호작용기능(family interaction function), 정서조절(emotional regulation), 자기통제력(self-control).

* 본 논문은 2011년도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구두발표논문을 확장한 것임.

¹⁾ 대경대학 유아교육과 겸임강사

²⁾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Soo-Back Moon, Department of Child Studies,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330 Hayang-eup, Gyeongsan-si, Gyeongsangbuk-do 712-702, Korea
E-mail : iqmoon@hanmail.net

I. 서 론

최근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아동의 신체적 성숙뿐만 아니라 정서적, 인지적 성숙으로 인해 청소년들 사이에서 주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행동들이 초등학교생들 사이에서도 발생하고 있고(이주리, 2008), 점점 저연령화 되어가고 있어(Andreozzi, 1996) 현실점에서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아동은 여러 성숙단계를 거쳐 성장, 발달하는 존재로서 매단계에 따라 정서적, 행동적 차원에서 스스로를 계발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할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동적 부적응은 아동의 균형 있는 성숙을 저해하고 성인기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될 수 있는 ‘문제행동’으로 명명되어 사회적인 관심과 우려의 대상이 되어 왔다(최유정 · 최셋별, 2007).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이하 교과부)는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생들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우울증, 자살문제, 인터넷 중독 등 성장기 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하여 학교 및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조기진단에서 치료까지 연계 실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따라서 아동 자신의 삶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만큼 문제행동 또한 그들의 삶의 변화된 차원을 다양하게 포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조화되어야 하며 이는 아동을 통해 표출되는 문제적 상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최유정 · 최셋별, 2007). Achenbach(1991)는 아동의 적응상의 문제를 내면화문제행동과 외면화문제행동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외면화문제행동은 아동이 자신의 행

동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로, 공격성, 과잉행동, 거짓말, 도벽, 다른 사람을 못살게 구는 등의 행동적 문제를 말하며, 내면화문제행동은 자신의 행동을 지나치게 억제하거나 자신을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는 위축행동 및 불안행동을 의미한다(김연 · 한태숙 · 황혜정, 2004). 내면화문제행동은 그 자체만으로도 당사자들에게 심리적 고통을 일으킬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들의 자아, 학업성취, 친구관계 등 여러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그들의 발달을 저해하게 되고, 자살충동이 반복될 경우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극단적인 경우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이주리, 2008). 또한 이정혜(2004)는 아동의 내면에 부정적 표상이 형성된 후 그 표상을 매개로 하여 공격적 행동을 표출할 수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보면 내면화문제행동인 위축, 신체증상, 불안, 우울 등의 정도가 심해지면 외면화문제행동인 비행이나 공격성 등으로 나타낼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에 아동의 문제행동에 있어서 내면화 및 외면화문제행동으로 나누어 그에 따른 개인변인 및 환경변인 간의 관련성을 검증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문수백(2003)과 Lewin(1943)에 따르면 인간은 환경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동일한 환경 하에서도 개인의 특성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인간행동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설명모델은 환경변인(처치변인)과 개인변인을 동시에 고려한 상호작용적 관계를 밝혀 주는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문제행동을 예측, 설명 그리고 통제하기 위한 원인들을 탐색하여 그 원인들과 결과간의 구조적 인과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아동의 문제행동은 환경적 변인인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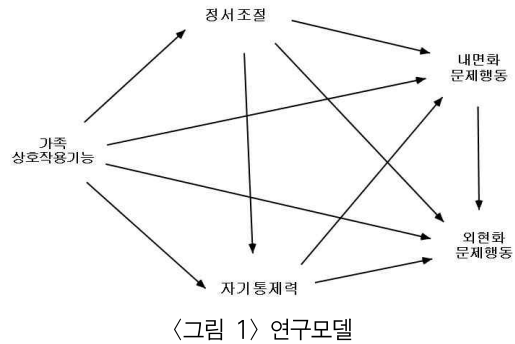
학교, 사회 등과 같은 여러 환경적인 요소의 영향을 받고 있으나 Egger과 Angold(2006)는 아동의 문제행동이 부모와 아동, 환경과의 관계에서 시작됨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아동의 문제행동을 가장 먼저 인지하고 또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가족이며(유일영·유현정, 2010), 아동의 문제행동은 사회화의 1차적 담당체인 가정의 완전치 못한 기능수행의 결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가정환경은 아동의 행동문제 발생에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Tolan, Cromwell, & Brasswell, 1986).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가정·환경적 변인은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지지, 부모 자녀간의 의사소통, 부모애착, 부부갈등 부모의 행동통제 등으로 여러 가정환경요인들 중 지나치게 부모의 특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으로 국한된 연구(권미경, 2009; 김연 외, 2006; 김지윤 외, 2008; 김혜순, 2009; 문유선·김도훈, 2001; 박진아 외, 2009; 이영경 외, 2008, 이주리, 2008)들로 문제행동과의 관련성을 설명해왔다. 한편 가족치료이론가들은 가족구성원들, 특히 부모의 개별적 특성이나 일대일의 특정한 관계에 의거하여 가족을 설명하기보다 가족전체를 하나의 살아있는 역동적인 체제로 보고, 개인의 부적응 행동의 원인, 발달, 유지에 관여하는 가족체제가 지닌 이면의 병리적 과정의 본질을 규명하려 노력하였다(백용매·문수백, 2009). Olson과 Gorall(2003)에 따르면 가족적응성(family adaptability)은 가족체제가 당면하는 상황적, 발달적 과업에 대응해서 변화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며, 가족응집성(family cohesion)은 가족성원간의 정서적 유대를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가족체계이론(family systems theory)에 기초를 두고 있는 가족적응성 및 가족응집성을 하위요인으로 하는 가족 상호작용 기

능은 가족 내에서의 역동성을 설명하고 가족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적 기능을 파악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개념이라 보고하였다(이상길, 2004). 따라서 아동의 내면화·외현화 문제행동과 관련된 환경변인 중 부모의 특성에만 국한된 연구가 아닌 전체 가족체제에서의 상호작용 기능 수행도에 따른 관련변인간의 인과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아동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환경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아동의 능동적이고 내적인 능력 또한 중요하다(김린, 2006). 아동의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개인변인으로 기질(허순영·이경옥·김영희, 2005; Bates & Bayles, 1988), 자아존중감(문영숙, 2007), 정서조절(송선미, 2007), 자아탄력성(한현아·도현심, 2008), 자기통제력(김선희, 2000), 스트레스(정문자·박진아, 2001) 등이 주로 연구되어져 왔다. 이와 같은 개인변인들 중 부정적 정서성은 문제행동을 예언하는 강력한 변수로 Nelson 등(1999)의 종단연구에서 밝혀진바 있다. 또한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많이 보이거나 정서나 행동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는 아동들이 공격적으로 행동하며 이후의 외현화 및 내면화 문제행동을 야기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박종효, 2004; Rubin, Burgess, Dwyer, & Hastings, 2003; Shaw, Owen, Giovannelli, & Winslow, 2001). 즉 정서조절은 개인이 어떤 특정 정서에 대해 적응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조절전략(임희수, 2001)으로 정현희와 정순화(2007)는 한 개인이 자신의 정서를 어떤 방식으로 조절하는 것은 사회적인 관계형성이나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라 지적하였

다. 요컨대 슬픔이나 화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아동일수록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문제행동을 많이 나타내는(서지영, 2003; Zenma, Shipman, & Suveg, 2002) 반면에 부정적 정서를 잘 통제하는 아동은 사회적 기능을 잘 수행하고 사회적으로 친사회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며, 인기가 높고, 공격적이고 파괴적 행동이 적으며 문제행동을 적게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Eisenberg, Fabes, Murphy, Maszk, Smith, & Karbon, 1995).

이외에도 아동의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개인요인으로 아동의 자기통제력은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행동과 그렇지 못한 행동을 잘 구별하여 자신의 행동을 주어진 상황에 맞게 잘 조절하는 능력(김선희, 2000; Brody & Flor, 1997)이다. 자기통제력은 영아기부터 나타나서 연령의 증가와 함께 서서히 발달하여 11~12세가 되면 대부분의 아동은 복잡한 통제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청년기까지 변화하지 않고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김린, 2006; Kopp, 1982) 아동기 성장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아동의 문제행동과 자기통제력 간의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에서 자기통제력이 부족한 아동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동과 더 많은 행동문제를 보이고(김린, 2006; Caspi, Henry, McGee, Moffitt, & Silva, 1995), 자기통제력 수준이 높을수록(김선희 · 김경연, 1999; Brody & Flor, 1997; Feldman & Weinberger, 1994) 아동의 행동문제 수준은 낮아짐을 보고하였다(김선희, 2000). 따라서 아동의 자기통제력은 부모의 영향력이 미치지 어려운 아동후기나 청년초기 자녀의 바람직한 사회적 적응을 준비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써(권미경, 2009), 아동의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가족 상호작용기능과 아동의 정서조절, 자기통제력은 아동의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는 아동의 내면화·외현화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상호작용기능, 아동의 정서조절, 자기통제력과의 인과적 관계에 대한 규명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모델링을 이용하여 아동의 문제행동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원인변인들의 탐색을 통해 나타난 관계를 경험적 사실에 비추어 규명함으로써 성장기 아동의 문제행동을 사전에 통제하여 향후 청소년 및 성인기에 발생하는 문제행동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연구모델인 구조회귀모델의 부합도 및 모수치를 신뢰롭게 추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연구대상을 얻기 위해 모수치 : 피험자의 수의 비율 1 : 15의 기준에 따라 대구 및 경북지역에 소재한 4개교에서 층화무선표집방법

으로 표집된 초등학교 5학년(325명), 6학년(384명)의 남(370명), 여(339명) 아동 70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측정 도구

1) 가족상호작용기능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족 상호작용기능검사는 Olson, Portner와 Lavee(1985)가 가족상호작용기능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 표준화한 Family Adaptability & Cohesion Evaluation Scale(FACES III)를 전귀연(1993)이 번안한 도구 중 김재호(2006)가 초등학교용으로 수정한 것을 재구성한 것이다. 가족 상호작용기능검사는 가족응집성 10문항과 가족적응성 10문항을 하위요인으로 하는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며,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정말 그렇다’(5점)에 이르는 5점 Likert 척도로 가족상호작용기능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상호작용기능을 많이 사용함을 나타낸다. 문항들 간의 내적합치도(Internal-Item Consistency)를 알아보기 위한 신뢰도 분석결과 가족 응집성은 .86, 가족적응성 .80으로 나타났다. Raykov(2004)의 CFA 측정모델을 이용한 척도신뢰도 추정절차에 따라 가족상호작용기능 척도의 신뢰도 계수를 추정한 결과 .89로 나타났다.

2) 정서조절

본 연구는 아동의 정서조절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Eisenberg(1993)가 사용한 13가지 아동 정서조절방식을 바탕으로 임희수(2001)가 초등학교용으로 수정한 것을 재구성하였다. 본 척도는 감정발산 7문항, 공격적 표현 7문항, 회피 7문항을 하위요인으로 하는 총 21문항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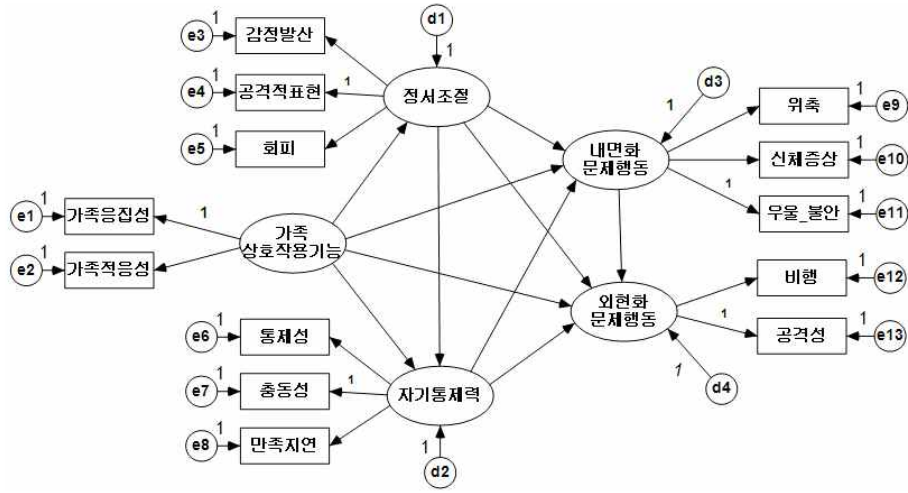
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며,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정말 그렇다’(5점)에 이르는 5점 Likert 척도로 정서조절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조절을 많이 사용함을 나타낸다. 문항들 간의 내적합치도(Internal-Item Consistency)를 알아보기 위한 신뢰도 분석결과 감정발산은 .75, 공격적 표현은 .82 회피척도는 .73로 나타났다. Raykov(2004)의 CFA 측정모델을 이용한 척도신뢰도 추정절차에 따라 정서조절척도의 신뢰도 계수를 추정한 결과 .86로 나타났다.

3) 자기통제력

본 연구는 아동의 자기통제력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Rohrbeck, Azar와 Wagner(1991)가 초등학교 3~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개발한 Child Self-Control Rating Scale(CSCRS)을 김린(2005)이 번안 수정한 것을 재구성하였다. 이 척도는 통제성 9문항과 충동성 11문항, 만족지연 8문항을 하위요인으로 하는 총 3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며,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정말 그렇다’(5점)에 이르는 5점 Likert 척도로 자기통제력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을 많이 사용함을 나타낸다. 문항들 간의 내적합치도(Internal-Item Consistency)를 알아보기 위한 신뢰도 분석결과 통제성은 .80, 충동성은 .78, 만족지연은 .78로 나타났다. Raykov(2004)의 CFA 측정모델을 이용한 척도신뢰도 추정절차에 따라 자기통제력척도의 신뢰도 계수를 추정한 결과 .94로 나타났다.

4) 내면화 · 외현화문제행동

본 연구는 아동의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Achenbach와 Edelbrock(1991)이 개발한



〈그림 2〉 통계적 모델

아동행동평가 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 CBCL)를 오경자 등(1997)이 번역하여 표준화한 한국판 아동·청소년 행동평가 척도(Korea Child Behavior Checklist : K-CBCL) 중 자기보고형(Korean Youth Self-Report : K-YSR)척도를 재구성하였다. 이 척도는 내면화문제행동(32문항)과 외현화문제행동(30문항)으로 총 6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면화문제행동의 하위요인으로 위축 7문항, 신체증상 10문항, 우울·불안 11문항과 외현화문제행동 하위요인으로 비행 11문항, 공격성 1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며,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정말 그렇다’(5점)에 이르는 5점 Likert 척도로 문제행동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을 많이 사용함을 나타낸다. 문항들 간의 내적합치도(Internal-Item Consistency)를 알아보기 위한 신뢰도 분석결과 내면화문제행동의 하위요인 위축 .81, 신체증상 .88, 우울/불안 .88로 나타났고, 외현화문제행동 하위요인 비행 .74, 공격성 .89로 나타났다. Raykov(2004)의 CFA 측정모델을 이용한 척도신뢰도 추정절

차에 따라 내면화 및 외현화문제행동 척도의 신뢰도 계수를 추정한 결과 내면화문제행동은 .86, 외현화문제행동은 .83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본 조사는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문제행동 원인변인으로 설정한 가족상호작용기능과 정서조절, 자기통제력의 직·간접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그림 1을 연구모델로, 그림 2를 통계적 검증모델로 설정하였다. 그림 2의 통계적 모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연구모델 하의 각 이론변수들은 지표변수들을 이용하여 수학적으로 측정되는 잠재변수로 설정하였다.

모델부합도는 부합도 지수 χ^2 값, RMSEA, CFI, NNFI 등을 통해 평가하였다. 그리고 모델 하의 변인들 간의 직접효과는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간접효과 역시 AMOS19.0의 Bootstrapping 절차를 사용하여 분석한 다음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표 1〉 측정변인간의 상호상관행렬 및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1.00												
2	.74	1.00											
3	.61	.67	1.00										
4	-.35	-.44	-.45	1.00									
5	-.37	-.42	-.46	.85	1.00								
6	-.35	-.42	-.45	.83	.84	1.00							
7	.49	.59	.48	.51	.49	.46	1.00						
8	.37	.50	.45	.52	.51	.46	.70	1.00					
9	.51	.49	.45	.37	.40	-.37	-.69	-.59	1.00				
10	.36	.35	.34	-.23	-.24	-.22	.47	.41	.60	1.00			
11	.39	.39	.40	-.33	-.37	-.33	.52	.54	.80	.56	1.00		
12	-.23	-.25	-.27	.39	.43	.39	-.27	-.32	-.31	-.26	-.34	1.00	
13	-.23	-.27	-.28	.39	.45	.42	-.26	-.31	-.31	-.24	-.32	.80	1.00
평균	26.40	25.95	23.51	32.83	36.30	28.35	42.96	16.61	33.24	19.98	13.87	37.36	35.50
표준 편차	4.68	5.19	4.91	4.75	5.41	4.25	11.38	4.88	10.01	7.36	5.03	6.35	5.93
왜도	.25	.20	-.12	.36	.32	.23	.27	1.05	.36	.52	.69	-.24	.03
첨도	.01	-.22	-.20	.22	.11	.40	-.10	1.23	-.24	-.75	.30	.09	.22
n	709	709	709	709	709	709	709	709	709	709	709	709	709

(1. 감정발산, 2. 공격적 표현, 3. 회피, 4. 통제성, 5. 충동성, 6. 만족지연, 7. 공격성, 8. 비행, 9. 우울·불안, 10. 신체증상, 11. 위축, 12. 가족응집성, 13. 가족적응성)

III. 결 과

1. 측정변인간의 상호상관행렬 및 기술 통계치

통계적 모델하의 측정변인들 간의 상호상관행렬 및 각 측정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추정한 결과 아래 표 1과 같다.

통계적 모델의 추정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AMOS19.0의 다변인정규분포성 검증 절차를 통해 구조방정식모델하의 13개 측정변수들에 대한 다변인정규분포성을 검증한 결과, 단 변인별 왜도와 첨도 모두에 있어서 정규분포의 조건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다변인정규분포성 가정 역시 충족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

문에 최대우도추정(ML :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절차를 적용하여 모델의 부합도와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2. 측정모델의 부합도 및 모수치 평가

연구모델인 구조회귀모델의 모델추정가능성과 부합도를 검증하기 전에 2단계 모델추정가능성 확인절차(문수백, 2009; Kline, 2011)에 따라 최대우도 추정법에 의한 측정모델의 부합도를 추정하였다. 부합도 추정결과는 아래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SEM(Structural Equation Model) 연구의 부합도 분석결과 보고는 최소한 1)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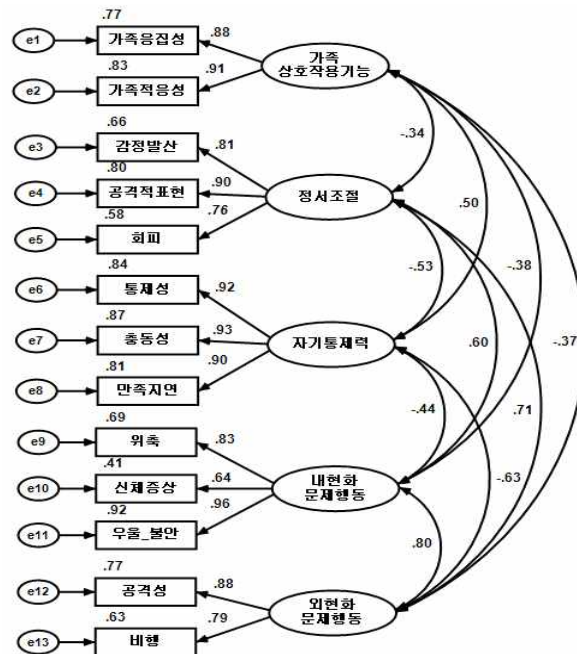
〈표 2〉 측정모델 부합도 지수

모델	NPAR	DF	CMIN	NC	TLI	SRMR	CFI	RMSEA(.07)	
								LO90	HI90
측정모델	36	55	221.13	4.02	.97	.03	.98	.06	.07

모델의 χ^2 값, 2) Steiger-Lind의 90% 신뢰구간 RMSEA, 3) Bentler CFI, Tucker와 Lewis(1973)의 NNFI, 그리고 4) SRMR을 보고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문수백, 2008; Kline, 2011). 표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부합도 지수 평가에서 측정모델의 RMSEA = .06~.07을 비롯한 모든 부합도 지수가 부합도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각 잠재변인과 지표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토한 결과, 모든 잠재변수에 있어서 지표변수들의 표준화 회귀계수인 요인부하량이 모두 .50 이상의 높은 부하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론변수들

간의 상호상관정도를 검토한 결과 어떤 이론변수도 모델하의 다른 이론변수들과 -.34~.80의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모델하의 각 이론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해 설정된 지표변수들이 충분한 수렴적 타당성을 지니고 있고, 이와 함께 이론변수들 간에도 충분한 변별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측정모델에 대한 어떤 수정도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델하의 모든 이론변수들이 측정모델을 통해 통계적으로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측정된 이론변수들 간의 인과적 관계를 설정한 구조회귀모델의 부합도 및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그림 3〉 측정모델 모수치 추정결과

<표 3> 초기연구모델의 부합도

모델	NPAR	DF	CMIN	NC	TLI	SRMR	CFI	RMSEA(.07)	
								LO90	HI90
초기모델	36	55	221.13	4.02	.97	.03	.98	.06	.07

3. 구조회귀모델의 부합도 및 모수치 추정결과

통계적 모델을 구성하는 측정모델의 모든 부합도지수가 부합도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구조회귀모델의 모델추정가능성이 이론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최대우도추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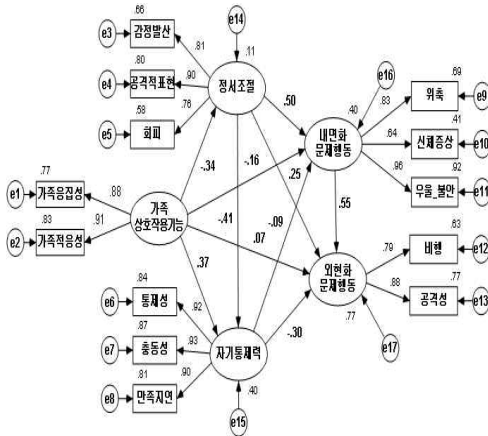
을 통해 연구모델인 구조회귀모델의 부합도를 추정한 결과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초기연구모델의 부합도를 추정한 결과 RMSEA = .06~.07, SRMR = .03, CFI = .98, TLI = .97 등 모든 부합도 지수 평가에서 부합도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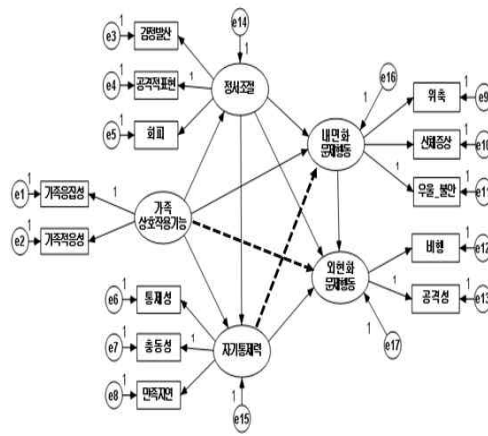
<표 4> 초기연구모델의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결과

변 인	비표준화 추정치	SE	C.R	p	표준화 추정치
<u>구 조 모 델</u>					
가족 상호작용 → 정서조절	-.28	.04	8.05	*	.34
가족 상호작용 → 자기통제력	.33	.03	9.84	*	.37
정서조절 → 자기통제력	-.44	.04	10.79	*	.41
정서조절 → 내면화문제행동	-1.03	.09	-11.26	*	-.50
가족 상호작용 → 내면화문제행동	-.28	.07	-4.06	*	-.16
자기통제력 → 내면화문제행동	-.17	.09	-1.93	.05	-.09
자기통제력 → 외현화문제행동	-.59	.03	-7.87	*	-.30
내면화 문제행동 → 외현화문제행동	.57	.02	13.49	*	.55
정서조절 → 외현화문제행동	.54	.03	-6.25	*	-.25
가족 상호작용 → 외현화문제행동	.13	.02	2.08	0.4	.07
<u>측 정 모 델</u>					
가족 상호작용 → 가족적응성	.97	.05	19.59	*	.91
가족 상호작용 → 가족응집성	1.00			*	.88
내면화 문제행동 → 위축	.44	.02	29.87	*	.83
내면화 문제행동 → 신체증상	.49	.03	19.31	*	.64
내면화 문제행동 → 우울/불안	1.00			*	.96
외현화문제행동 → 비행	.39			*	.79
외현화문제행동 → 공격성	1.00	.11	24.05	*	.88
자기통제력 → 만족지연	.76	.02	38.42	*	.90
자기통제력 → 충동성	1.00	.03	41.20	*	.93
자기통제력 → 통제성	.86			*	.92
정서조절 → 회피	.80	.04	22.88	*	.76
정서조절 → 공격적 표현	1.00			*	.90
정서조절 → 감정발산	.82	.03	25.74	*	.81

* p < .01.



〈그림 4〉 초기 연구분석모델



〈그림 5〉 수정된 연구모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델이 자료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모델하의 모수치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초기 연구모델인 구조회귀모델의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다른 변인들 간의 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기통제력이 내면화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C.R. = -1.93, $p > .01$), 가족상호작용기능이 외현화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C.R. = 2.08, $p > .01$). 이는 초기연구모델에서 수정된 간명모델이 위계적 모델(hierarchical model)의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초기연구모델에서 자기통제력 → 내면화문제행동으로 가는 경로와 가족상호작용기능 → 외현화문제행동으로 가는 경로를 삭제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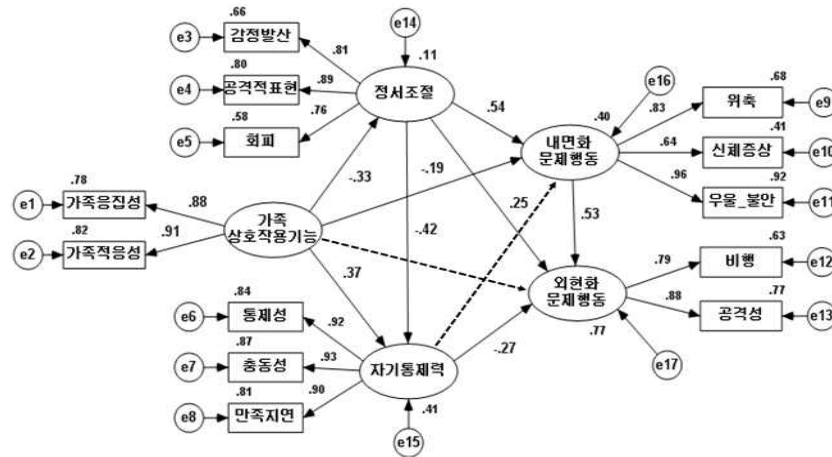
여도 초기모델과 수정모델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카이제곱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수준 .01에서 $\chi^2_D = 8.16, p = .02$ 로서 부합도에 있어서 수정모델과 초기연구모델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정모델이 초기연구모델과 비교하여 부합도 정도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큼 손실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경로를 2개 제거한 보다 간명한 모델이므로 수정모델 그림 5를 최종분석모델 그림 6로 선택한 다음 부합도 및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4. 수정된 연구모델의 부합도 및 모수치 추정결과

수정된 연구모델의 부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최대우도법을 통해 부합도 지수를 추정한 결과 표 5와 같다.

〈표 5〉 수정된 연구모델의 부합도

모델	NPAR	DF	CMIN	NC	TLI	SRMR	CFI	RMSEA	
								LO90	HI90
수정모델	34	57	229.29	4.02	.96	.03	.97	.06	.07
초기모델	36	55	221.13	4.02	.97	.03	.98	.06	.07



〈그림 6〉 최종분석모델 모수치 추정결과

위의 표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반적인 모델의 부합도 지수는 초기연구모델과 비슷하였으나 절대 부합지수인 Chi-Square(CMIN)값만 8.16만큼 높아졌고, 이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큼의 부합도가 나빠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정된 연구모델의 모든 부합도 지수가 부합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수정모델의 모수치를 추정할 결과 그림 6, 표 6과 같다.

표 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가족상호작용기능, 정서조절이 통계적으로 내면화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조절, 자기통제력, 내면화문제행동이 통계적으로 외현화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상호작용기능은 정서조절과 자기통제력을 거쳐 내면화·외현화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조절은 자기통제력을 거쳐 외현화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네 변인 중 정서조절이 아동의 내면화·외현화문제행동에 상대적으로 영향력(Total Effects)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표 6〉 내면화·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변인간의 직·간접 효과 분해표

효 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가족상호작용기능 → 정서조절	-.33	-.33*	
가족상호작용기능 → 자기통제력	.51	.37*	.14*
가족상호작용기능 → 내면화문제행동	-.38	-.20*	-.18*
가족상호작용기능 → 외현화문제행동	-.42		-.42*
정서조절 → 자기통제력	-.42	-.42*	
정서조절 → 내면화문제행동	.54	.54*	
정서조절 → 외현화문제행동	.65	.25*	.40*
자기통제력 → 외현화문제행동	-.27	-.27*	
내면화문제행동 → 외현화문제행동	.53	.53*	

* $p < .01$.

가족상호작용기능, 자기통제력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통제력은 내면화문제행동에 통계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의 내면화·외현화문제행동을 설명해야 할 결과변수로 놓고 선택한 결과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변인으로 가족의 상호작용기능, 아동의 정서조절, 자기통제력을 잠재변수로 설정하여 아동의 내면화·외현화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변인들의 구조적 직·간접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한 측정모델과 구조모델의 모델부합여부와 회귀계수의 모수치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모델인 구조회귀모델의 부합도를 검증하기 전에 모델추정가능성을 확인하는 절차(문수백, 2009; Kline, 2011)에 따라 최대우도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 ML)으로 측정모델의 부합도를 추정한 결과 부합도 지수 평가에서 측정모델의 RMSEA(.06~.07)를 비롯한 모든 부합도 지수에서 부합도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다음으로 구조모델의 부합도 및 모수치 효과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RMSEA(.06~.07)를 비롯한 모든 부합도 지수는 부합도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되었으나 모수치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에서 가족상호작용기능이 외현화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자기통제력이 내면화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상호작용기능이 외현화문제행동으로 가는 경로와 자기통제력이 내면화문제행동으로 가는 경로를 삭제한 보다 간명한 수정된 구조회귀

모델을 설정하였다. 수정된 구조회귀모델과 초기연구모델을 비교한 결과 부합도 정도($\chi^2_{df} = 8.16, p = .02$)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든 부합도 지수에서 부합도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기 때문에 수정된 구조회귀모델을 최종 연구분석모델로 선정하여 모수치를 추정한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가족상호작용기능은 내면화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외현화문제행동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병재(2010)의 연구에 따르면 가족상호작용기능과 문제행동과의 관계에서 부적상관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알아본 정나연과 이정숙(1999)의 연구에서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이 전체 문제행동 중 위축과 공격성을 예측하는 주요한 변인임을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함을 나타낸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족 간에 있어서 상호작용기능을 많이 사용하는 가족일수록 가족 상호간의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적응과 결속력이 높음을 의미함으로 이렇게 가족상호기능이 높을수록 아동은 특정상황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되어 아동의 내면화문제행동이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또한 윤혜미와 류나미(2007)의 연구에서 가족기능은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간접적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고, Dunn, Brown과 Beardsall(1991)의 연구에서 가족 구성원들 간의 정서적 갈등을 갖는 상호작용이 아동의 부정적 정서의 노출에 대한 지표가 됨을 지적함으로써 문제행동에 아동의 부정적 정서조절이 부분매개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김희태와 이임순(2009)의 연구에서는 가족 상호작용이 서로 밀착적이고 유대감이 높을 때 아동

은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스스로 점검하고 계획하며 외적 자극에 대한 충동 혹은 행동을 잘 통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잘 조절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게다가 Brody와 Flor (1997)의 연구에서 모-자관계의 상호작용 질이 아동의 행동문제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아동의 자기통제능력이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작용함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가족상호작용기능이 정서조절과 자기통제력을 통해 아동의 문제행동에 간접적 영향을 나타낸 결과는 아동이 가진 개인적 특성 중 어떤 특정 정서에 대해 적응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조절전략(임희수, 2001)인 정서조절과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행동과 그렇지 못한 행동을 잘 구별하여 자신의 행동을 주어진 상황에 맞게 잘 조절하는 능력(Brody & Flor, 1997)인 자기통제력이 가족 간의 상호작용기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가족 간에 서로 적응적이고 응집된 가족일수록 정서조절 및 자기통제력을 상황에 따라 잘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외현화문제행동이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 상호작용기능은 내면화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정서조절과 자기통제력을 통해 내면화·외현화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정서조절은 내면화·외현화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통제력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낮은 정서조절은 사회적 유능성이 낮고 일상생활에서 부적절한 행동하게 된다고 보고한 Eisenberg(1999)의 연구와 공격적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아동들은 이후에도 계속 파괴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을 나타내게 됨을 보

고한 많은 선행연구(김희영, 2010; 박성연·강지훈, 2005; 박지연·송하나, 2011; Shields & Cicchetti, 1998; Swartz & Proctor, 2000)의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남녀아동이 부정적 정서조절을 많이 할수록 문제행동이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한 이경님(2009)과 한유진(2004)의 연구결과와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서조절을 특정 정서를 유발하는 상황에서 그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처전략(임희수, 2001)으로 명명하면서 정서조절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념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발되는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적 행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정적정서조절의 대처반응이 증가할수록 내면화문제행동 뿐만 아니라 외현화문제행동이 증가하게 됨을 의미한다. 게다가 정서조절 사용은 자기통제력을 매개하여 외현화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특정상황에 따라 부정적 정서에 대한 자신의 정서를 부정적으로 대처하여 사회 전반으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통제능력을 완화시켜 밖으로 들어난 외현화문제행동이 증가됨을 의미한다.

이어서, 아동의 자기통제력은 외현화문제행동에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Hinshaw(1992)의 연구에서 아동의 자기통제가 위축, 불안의 내면화행동문제보다는 과다 행동 및 공격적 행동과 같은 외현화문제행동과 더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통제능력이 떨어지는 아동은 표현을 너무 과하게 함으로써 어떤 상황에서 부적응적으로 보이게 됨을 보고한 연구(Coie, Zahn-Waxler, Fox, Usher, & Welsh, 1996)에서 아동의 자기통제력이 내면화문제행동 보다 외현화문제행동과 더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 외에도 충동 통제능력이 부

족한 아동은 외현화문제행동과 비행행동의 성격을 보인다고 보고한 연구(김린, 2006; 김선희·김경연, 1999; 박중효, 2003; Caspietal, 1994; Eisenberg, Fabes, Shepard, Guthrie, Murphy, & Reiser, 1999; White, Moffitt, Caspi, Bartusch, needles, & Stiuthamer-Loeber, 1994)들의 결과를 지지한다.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행동과 그렇지 못한 행동을 잘 구별하여 자신의 행동을 주어진 상황에 맞게 잘 조절하는 능력이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적인 의미와 깊은 관련성을 나타냄으로 자기통제력이 높은 아동들은 밖으로 드러나는 반사회적 행동 및 공격성 등의 외현화문제행동을 잘 통제하여 외현화문제행동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내면화문제행동은 외현화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chenbach(1991)는 문제행동을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광범위한 요인 중 하나인 내면화문제행동은 소극적·사회적으로 내재화되어 과잉 통제된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울, 불안, 위축을 비롯하여 신체 증상, 주의집중문제 등의 증상을 포함하고, 외현화행동문제는 감정이나 행동의 적절한 억제가 결여되어 과소 통제된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비행과 공격성 등의 증상을 포함한다. 이러한 내면화·외현화문제행동에서 Quay(1972)는 각각의 행동문제들은 따로 분리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여러 행동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깊이 연관되어 나타나기도 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내면화·외현화문제행동은 행동에 있어서 서로 관계를 주는 복합적 관계로 인식하여야 하고, 위축되거나 우울·불안이 심해졌을 때 그것이 외적인 행동으로 표출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게다가 외부적으로 쉽게 들어나는 공격성, 비행 등과 같은 외현화문제행동은 쉽게 확인할

수 있으나, 내면화문제행동인 우울, 불안, 신체 증상 등은 쉽게 밖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내면에 축적해 두었다가 서서히 문제행동으로 나타나 외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외현화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시간의 변화에 따른 내면화·외현화문제행동간의 변화에 대해 검증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내면화·외현화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상호작용기능과 아동의 정서조절, 자기통제력에 따른 직·간접효과를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이들 변인들간의 구조적 인과관계가 아동기에 나타나는 문제행동을 예측·설명·통제하고 청소년 및 성인기에 발생하는 문제행동을 미연에 방지하여 아동의 균형 있는 발달을 도모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남녀아동의 차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문제행동의 변화추이 등의 다중 집단간 비교연구 혹은 잠재성장 모델 비교 등의 추후 연구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정서조절에 대한 지표변수로 감정발산, 공격적 표현, 회피로 부정적 정서조절의 하위요인을 선택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사용하지 않은 다양한 정서의 대처반응과 문제행동간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병재(2010). 가족상호작용과 아동의 또래상호작용 및 사회적 힘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학회**, 19(4), 93-110.
- 고정자(2003). 청소년의 개인변인과 청소년이 지각한

- 가족변인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 41(7), 121-143.
- 교육과학기술부(2011). ‘**학생정신건강서비스지원 확대**’ 보도자료.
- 권미경(2009).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와 자녀의 지각 비교. **아동간호학회지**, 15(2), 164-170.
- 김린(2006). 부모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기통제가 사회적 유능성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선희(2000).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 유형에 따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인과모형탐색**.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선희·김경연(1999). 아동의 행동문제와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 17(1), 155-166.
- 김연·한태숙·황혜정(2004). 유아의 정서지능, 인지능력, 기질과 문제행동의 관계성 및 영향력에 관한 연구. **한국유아교육학회**, 24(6), 277-298.
- 김지윤·도현심·김민정(2008). 부부갈등과 유아의 기질 및 정서조절능력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학회**, 29(5), 133-150.
- 김재호(2006). **초등학생의 가족체계와 자기효능감 및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희영(2010). **어머니의 통제 및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희태·이임순(2009). 가족 상호작용 유형에 따른 유아의 자기조절과 또래유능성. **미래유아교육학회**, 16(1), 1-21.
- 김혜순(2009). 어머니의 애착실행모델, 정서표현성, 유아기 자녀의 정서조절과 문제행동간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회**, 59, 329-348.
- 곽혜경·조복희(1999).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통제책략과 유아의 자기통제행동과의 관계. **한국아동학회**, 20(1), 165-176.
- 문수백(2009).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문영숙(2002). 어머니의 애착유형, 자녀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 지각된 사회적지지 및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 간호과학연구소**, 5(1), 37-53.
- 문유선·김도훈(2001). 청소년에서 자녀가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문제행동의 연관성.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12(2), 237-244.
- 박성연·강지훈(2005). 남,여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및 공격성과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한국아동학회**, 26(1), 1-14.
- 박종효(2004). 기질과 또래관계가 문제행동 및 학습수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심리학회**, 18(3), 41-57.
- 박지연·송하나(2011). 자기조절능력 증진프로그램이 유아의 인지 및 정서조절 능력과 외현화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유아교육학회**, 31(1), 157-182.
- 박진아·이경숙·신의진(2009). 모-자녀관계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14(4), 549-566.
- 백용매·문수백(2009). 청소년 비행행동 관련변인들간의 관계구조분석. **재활심리연구**, 16(3), 143-162.
- 오경자·이혜련·홍강의·하은혜(1997). **K-CBCL, K-YSR 척도**.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유일영·유현정(2010). 학령전기 아동의 어머니가 인지한 아동의 문제행동 관련요인. **아동간호학회**, 16(2), 112-119.
- 윤혜미·류나미(2007). 가족기능,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초등학생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연구회**, 33, 215-236.
- 이경남(2009). 아동의 정서조절능력과 부모변인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7(7), 1-12.
- 이상길(2004). 가정배경 변인에 따른 일반계 고교생이 지각한 가족적응성과 가족응집성의 차이. **한국심리학회**, 16(3), 435-448.
- 이영경·장훈·최진이·허태균(2008). 부모-자녀가 지각한 의사소통 유형 일치도와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5(3), 389-404.
- 이정혜(2004). 아동의 공격성 유발요인에 대한 대 상관계이론적 관점. **한국상담학회**, 5(4), 1155-1168.

- 이주리(2008).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초등학교생의 내면화 및 외면화 문제행동의 발달과정. **한국아동권리학회**, 12(4), 503-523.
- 임희수(2001).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서지영(2003). 부모의 양육행동 및 여아의 정서조절능력이 여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선미(2007). 비행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정서성과 정서조절전략이 문제성 음주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숙영(2007). 어머니의 심리통제 및 아동의 행동적 자율성과 자기 통제력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4), 169-179.
- 정경연 · 심혜숙(2007). 부모 자아분화와 아동 자아분화 및 세대간 가족관계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학회**, 28(6), 119-133.
- 정나영 · 이정숙(1999). 아동의 행동문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가족의 응집 및 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 17(4), 61-71.
- 정문자 · 박진아(2001).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행동문제간의 관계. **한국아동학회**, 22(3), 107-122.
- 정현희 · 정순화(2007).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및 자기유능성지각과 문제행동. **대한가정학회지**, 45(7), 93-103.
- 최유정 · 최선훈(2007). 아동의 사회적 관계 및 심리적 특성과 문제행동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5(1), 75-89.
- 한연아 · 도현심(2008). 가정의 위험요인, 자아탄력성 및 또래관계의 질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학회**, 29(1), 87-101.
- 한유진(2004). 아동의 정서조절 동기 및 정서조절 능력과 행동문제. **대한가정학회지**, 42(3), 66-78.
- 허순용 · 이경옥 · 김영희(2005).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 부조화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방식 및 아동의 문제행동.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 9(2), 1-17.
- 황혜정(2003). 가족구조에 따른 아동의 문제행동과 조부모의 역할에 대한 인식 비교. **대한가정학회**, 41(12), 27-38.
-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4-18, and profile*. Burlington, Dept. of Psychiatry, Univ. of Vermont.
- Andrezzi, L. L. (1996). *Child-centered family therapy*. New York : Wiley Publication.
- Bate, J. E., & Bayles, K. (1998). *The role of attachment in the development of behavior problems*. In J. Belsky & T. Nezworsky (Eds.), *Clinical implications of attachment*. NY : Wiley.
- Brody, G. H., & Flor, D. L. (1997). Maternal psychological functioning, family processes, and child adjustment in rural, single-parent, African American families. *Developmental Psychology*, 33(6), 1000-1011.
- Caspi, A., Henry, B., McGee, R. O., Moffitt, T. E., & Silva, P. A. (1995). Temperamental origins of child and adolescent behavior problems : Form age three to age fifteen. *Child Development*, 66, 55-68.
- Coie, P. M., Zahn-Waxler, C., Fox, N. A., Usher, B. A., & Welsh, J. D. (1996). Individual differences in emotion regulation and behavior problems in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5, 518-529.
- Dun, J., Brown, J., & Beardsall, L. (1991). Family talk about feeling status and children's later understanding of others' emotions. *Development Psychology*, 27, 455-488.
- Egger, H. L., & Angold, A. (2006). Common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in preschool children : presentation, nosology, and epidemiolog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ic*, 47, 313-337.
- Eisenberg, N., Fabes, R. A., Murphy, B., Maszk, P., Smith, M., & Karborn, M. (1995). The role of emotionality and regulation in children's social functioning : A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66, 1360-1384.

- Eisenberg, N., Fabes, R. A., Shepard, S. A., Guthrie, I. K., Murphy, B. C., & Reiser, M. (1999). Parental reaction to children's soci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70*(2), 513-534.
- Feldman, S. S., & Weinberger, D. A. (1994). Self-restraint as a mediator of family influences of boys' delinquent behavior : A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65*, 195-211.
- Hinshaw, S. P. (1992).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 and academic under achievement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 implications for substance preven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1*, 127-155.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New York : The Guilford Press.
- Kopp, C. B. (1982). The antecedents of self-regulation. A development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2), 199-214.
- Lewin, K. (1943). Defining the "Field at a Given Time." *psychological Review, 50*, 292-310.
- Nelson, B., Martin, R. P., Hodge, S., Havill, V., & Kamphaus, R. (1999). Modeling the prediction of elementary school adjustment from preschool temperamen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6*, 687-700.
- Olson, D. H., & Gorall, D. M. (200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In Walsh, F. (Ed), *Normal family processes : Growing diversity and complexity 3rd ed.* (pp. 514-548).
- Olweus, D. (1980). Familial and temperamental determinants of aggressive behavior in adolescent boys : Acausal and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16*(6), 644-660.
- Patterson, G. R., & Ramsey, E. (1989).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antisocial behavior.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44*, 329-335.
- Quay, H. C. (1972). *Patterns of aggression, with drawl, an immaturity*. New York : John Wiley & Sons.
- Raykov, T. (2004). Behavioral scale reliability and measurement invariance evaluation using latent variable modeling. *Behavior therapy, 35*(2), 299-331.
- Rubin, K. H., Gurgess, K. B., Dwyer, K. M., & Hastings, P. D. (2003). Predicting Preschoolers' externalizing behaviors from toddler temperament, conflict and maternal negativity. *Developmental Psychology, 39*, 164-176.
- Shaw, D. S., Owen, E. B., & Giovannelli, J. (2001). Infant and toddler pathways leading to early externalizing disorders.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0*, 36-43.
- Tolan, P., Cromwell, R., & Brasswell, M. (1986). "Family Therapy with Delinquent :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Family Process, 25*, 619-650.
- White, J. L., Moffitt, T. E., Caspi, A., Bartusch, D. J., Needles, D. J., & Stouthamer-Loeber, M. (1994). Measuring Impulsivity and Examining its Relationship to Delinquenc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3*, 192-205.
- Zeman, J., Shipman, K., & Suveg, C. (2002). Anger and Sadness Regulation-Predictions to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Symptoms in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1*(3), 393-398.

2011년 6월 21일 투고, 2011년 8월 29일 수정
2011년 9월 22일 채택